

2019년 9차 노인분과 회의록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1:00 ~ 13:30					
장 소	유당마을					
참석자(총10명) 10/19 공(1/4) 민(9/16)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임화선(공공분과장)	○	김현우	X	한은영	○
	전상원(민간분과장)	○	박인덕	○	장홍석	X
	이찬수(총무)	○	장은경	X	이명식(공공)	X
	김지선(서기)	○	김중현(공공)	X	유사름(공공)	X
	김영식	○	진혜원	X	강정구	X
	김은주	○	인원교	X		
	김장수	○	하창우	○		
회의주제 및 안건	<p>1. 인사 및 공유</p> <p>1)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2) 전차 회의결과 공유</p> <p>2. 안건 논의</p> <p>1) 2019년 노인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논의 2)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 TF 추진내용 공유 3) 커뮤니티케어 지원 실무분과 연합 공동사업 논의(사례 시뮬레이션 분석)</p> <p>3. 기 타</p> <p>1)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 공유 2) 차기회의 일정</p>					

회 의 결 과

- 1. 인사 및 공유**
- 1)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2) 전차회의 결과
- 이견 없음.
- 2. 안건 논의**
- 1) 2019년 노인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논의
- 제목: <알기 쉬운 노인인권>으로 결정
 - 목차 수정
 - * 서문
 - : 발간 취지 등 소개
 - I. 노인인권의 이해
 - : 정의, 개념 등
 - II. 노인인권 관련 법률
 - : 국내법, 국제법 등 관련 제도와 지침
 - III. 사례별 대응방안

회의 결과

: 사례 상담 및 사례관리 단계 소개

: 실제 사례 내용

IV. 학대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목록

* 참고문헌

- 내용 보완: 실제 사례를 시설·기관별보다 상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을 제안
예시) 1. 케어할 때 2. 성차별 3. 세대 차별 등
- 감수자 섭외 완료. 추후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방문하여 자문받을 예정

2)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 TF 추진내용 공유

※ 노인문화축제 10. 08.(화) 10:30,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 시 배포용 계획안 공유
- 변경사항: 시간계획에서 폐회 직전 입북동 효지팡이 전달식이 추가됨. 노인복지관별 200개 지급 예정이며 추가 가능여부는 공공분과장 확인 예정. 또한 올해 안전관리 관련 법 개정으로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측 감독이 전체 인원교육 총괄하여 수행, 파트별 교육 이수 서명까지 할 예정임.
- 전차 TF회의록 내용 수정: 수원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인력 지원은 안전요원, 차 관리 등 정해져 있는 업무분장이 있으므로 포토존에 상주할 수 없음을 안내
- 위치: 입장 시 내부 왼쪽 다인병원 의료진 및 보건소 퀴즈 프로그램, 오른쪽 차 배치, 포토존은 당일 유동적으로 세팅
- 업무분장(안)

역할	위원명
총괄	진혜원
내빈 안내	전상원, 한은영(주)/김은주, 김장수(부)
포토존 관리	박인덕, 이찬수
온수통 지참	이찬수
수자원공사 생수 지참	전상원
무대 설치/운반	인원교, 하창우, 장홍석(주)/강정구, 김현우(부)

- 그 외 지원인력 배정은 TF팀장이 진행하도록 함.

3) 커뮤니티케어 지원 실무분과 연합 공동사업 논의

※ 붙임문서 참고

-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김은주 팀장 사례 브리핑
- 전체 사례 분석 진행

3. 기 타

1)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 공유

- 커뮤니티케어 지원 관련 노인분과 사례분석 FGI 09. 23.(월) 13:00, 유당마을

2) 차기회의 일정

- 일 시 : 2019. 10. 17.(금) 11:00, 유당마을

회의 결과

회의사진



9/18 노인분과 커뮤니티케어 사례분석

○참석위원(10명)

-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임화선
- 서수원철보체육관 팀장 전상원
- SK청솔노인복지관 과장 이찬수
- 무봉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김지선
- 유당마을 원장 김영식
-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김은주
- 연무사회복지관 과장 김장수
- 능실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박인덕
- 서호노인복지관 과장 하창우
- 효경의손길 재가노인지원센터장 한은영

○분석 내용 속기록

- 김은주: 정신과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복지관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어서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함. 센터 자체적으로 사례 공유할 때 정리하는 품임.
- 제시된 사례 브리핑
- 김은주: 이 사례가 커뮤니티케어의 일반적인 사례들, 지금 의도와 맞을지 모르겠음.
- 한은영: 맞는 사례 같음. 커뮤니티케어가 기본적으로 나온 배경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늘고 지원해야 할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나온 거라서 어르신들이 다 병원에만 계시지 말고 지역으로 나와서 정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개입되었을 것 같은데 센터 위주로 작성이 된 문서다보니 그 외의 연계서비스 현황도 나타났으면 좋았겠음.
- 김은주: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개입했었고 수급자 등록과 임대주택 연계까지 완료함. 독거상태와 우울 정도를 고려해서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노인돌보미가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임. 고혈압, 당뇨가 있어 방문간호서비스로 관리해드리고 있는 상황임.
- 임화선: 통합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건과 의료라고 생각함.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분을 더 녹여냈으면 좋았겠음.
- 김영식: 당사자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지 질의.
- 김은주: 일상생활은 잘 유지함. 치매가 있지는 않은데 우울이 높아서 그렇다고 답변.
- 전상원: 외부로 봐서는 정상인데, 단지 정신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우울이 높을 뿐임.
- 임화선: 놓여진 상황이 그러함.
- 김은주: 그래서 며느리가 연을 끊게 됨. 서로 충격도 받고 갈등이 있었을 것임.
- 김장수: 동에서 개입을 한 이후에 방문간호나 복지센터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나고 센터에서만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지 질의.
- 김은주: 지속적으로 하진 않고 동 사례관리사가 종결하고 아마 끊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
- 김장수: 동은 6개월이면 종결함.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음. 같이 정보공유가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지만 필요한 부분임.
- 전상원: 그 창구가 지금 없음.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도 어느 정도만 해주면 빠지고, 필요하면 노인복지관이나 재가 쪽으로 연결해주고 끝임. 필요한 부분은 계속 소통이 되어야 하고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있을 수 있음. 그렇게 되면 향후 주거에 대한 문제도 그러함.
- 김은주: 이 분은 자살시도를 다시 하거나 집이 없어진 건 아니고 밥도 잘 드시는 편이고 이렇게 되니 주

민센터에서는 더 이상 이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임. 혹시 추후에 사례관리 지속을 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다시 의뢰하면 되는데 모두 다 끌어안고 있기에는 관리 대상이 너무 많음.

-김장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통합사례회의를 가는데 그걸(이전 사례) 넘기지 꺼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함. 커뮤니티케어가 만들어지면 그런 협의체같은 게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만나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전상원: 케이스를 조정하고 중재해주는 역할의 중심체가 없는 것임. 아니면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다른 자원이 필요하면 중재 역할해주는 곳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다시 연계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임.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여기 말고 현재 센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례회의나 중간 체크를 하느냐? 약을 잘 안드신다고 하니 약물관리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또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임.

-김장수: 보통 사례관리하면 중간점검은 6개월이나 긴급한 상황이면 매달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사례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주사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긴 함.

-임화선: 컨트롤타워 같은 것임.

-김장수: 내용에 보면 센터 양식과 다르긴 하지만 이 분의 욕구가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음. 인적사항 조사 외에 표현된 욕구가 없음.

-김은주: 이 분이 원하시는 건 손주를 보고 싶은 게 제일 욕구가 큼. 가족과 단절이 되어 있으니 며느리와 연락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제일 잘 안 됨. 사례관리할 때 자문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좀 건드려주라는 피드백을 받음. 건강하게 우울하지 않고 약도 잘 드시면서 지내셔야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 설득이 어려운 상황임. 집이 없어져서 오갈 데가 없는 부분은 해결을 해주셨음. 경제적인 부분과 주거지 안정화를 시킨 것이 가장 큰 부분임. 더 좋아져서 안정되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것이 바라는 소원이겠지만 쉽지 않음.

-김영식: 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임. 희망을 주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은 긴급상황들만 해결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쪽은 개인의 몫으로 치부함. 이런 분들은 내 자신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 원래는 사실 개인의 몫이지만 그 부분을 항상 놓친다고 생각함. 그것이 독립이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적 자원이 형성되고 하는데 우리는 긴급상황만 해결하고 끝이고 그 뒤에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임. 이 분은 노인이고, 주거지도 옮겨져서 기존에 살던 데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함. 친구동료관계가 참 중요한데 억지로 붙여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취미, 식사같은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간과되어 있지 않나 생각함. 커뮤니티케어는 통합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함.

-전상원: 한국과 외국의 서비스가 다른 점은 한국은 주관적인 문제에서는 손을 놓고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밖으로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나를 만들어냄.

-김영식: 항상 그 부분이 아쉬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고 종결하고 사후관리나 좀 하고 마는데 사후관리 단계에서 그런 개입을 해줘야 함. 관참은지를 보러 가는 것인데...

-전상원: 찾아가는 것은 잘 하고 있음. 그런데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는 없음.

-김은주: 이 분에게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음.

-전상원: 센터에 오는 것 외에도 취미나 어떤 활동이 있으면

-김영식: 노인들에게는 종교생활이 중요함. 맞는 종교기관을 찾아서 연계해주는 것도 좋을 것임.

-김은주: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다들 여력이 없음. 급하게 발굴된 새로운 분들을 해결하느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전상원: 작년에 일본갔을 때 커뮤니티케어의 어려운 점을 들었는데 90년대 재가복지를 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리와인드되고 있음.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파견하는데 지속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있음. 일본의 사례를 전파하고 있지만 참여인력들의 중도포기가 많다는 단점이 있음. 20년 전 했던 초창기 사례와 유사하게 가고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커뮤니티케어가 나온 것임. 지금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유지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다가도 옆에서 실버인력뱅크의 노인일자리 등 돈을 받는 것을 보면 다 유료로 요구하게 되는 흐름이라 이제는 한계성이 있음. 지금까지 무료로 인식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인식이 바뀌었음. 안 그러면 순수 자원봉사 교육을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관계를 맺고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 유인인력이 필요한 것임. 다음 단계로 연계할 때 누군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가지 않으면 끝나는 상황임.

-김영식: 약도 처방해서 주지만 본인이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임.

-김장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권역이 나뉘어 있는데 곡반정동에 계시면 굳이 먼 곳으로 갈 필요 없이 이 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 해당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가기에 쉽지 않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보시거나 나들이를 가실 수도 있음. 의사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볼 수 있음.

-전상원: 주소지 인근은 버드내노인복지관이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될 것 같음.

-김은주: 저희 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이어서 복지관 같은 곳은 잘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음. 인지기능도 좀 떨어지고 사회성도 미숙하고 하면 적응하는데 사람에 치이게 됨.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긴 할 것임.

-한은영: 서비스 제공한 부분에서 재가복지센터 등이 있는 걸 보면 이 외에도 다른 복지서비스들을 받고 있지 않을까 추정됨.

-김은주: 최대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다 연결해준 것으로 보임.

-(중간 내용 정리)

-김은주: 추가적으로 이 분이 가게 된 임대주택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단지 자체의 특성이 있음. 자살시도하셨던 분이 밑에 사시고 이런 환경이 되면 그런 분들이 서로 알게 되었을 때 좋은 것인지 부정적인 영향이 배가 될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러움. 건강한 조직에 들어가서 이웃사람에게 좋은 서포트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되신 거니까 문제적 구조에서 지지가 잘 안 됨. LH에 다 힘든 분들만 모여 계심.

-전상원: 소속되는 지역사회가 좀 건강한 지역사회여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임.

-김은주: 현실적으로는 임대주택이 아닌 곳으로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됐었음. 지역사회에 묻어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됨. 지지자원이 없으면 사는 게 팍팍함.

-김영식: 그렇지만 가족 문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음.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는 더욱 그러함.

-김은주: 센터에 이렇게 단절되고 지지기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답을 찾기 힘들. 병원에 가려고 해도 모시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부터 그림.

-김영식: 경제적 형편은 다르지만 노인이 되었을 때 가족같은 지지기반이 없으면 이런 기관에서만 개입하기가 어려움.

-김은주: 그런 부분이 아동 사례와는 또 다른 측면임. 자녀들이 챙기지 않으면 한계가 있음.

○중점사항 및 결론

-의뢰·발굴 과정에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 주체들의 역할 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민이 가진 욕구와 서비스 간의 공백 혹은 불일치는 무엇인가
 -서비스 연계 및 조정과정에서의 한계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가

서비스 접근성, 역할 문제	총괄적인 정보 공유의 어려움 긴급 상황 대처와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의뢰 후 빠른 종결 사례관리 종결 이후에는 스스로 적합한 상담창구 찾기 어려움 그러므로 낮은 접근성으로의 회귀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재 행정적으로 기관 미등록자는 관리 범주에서 벗어남
욕구와 서비스의 일치도	사적인 1차 비공식지원망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주거, 경제 문제 해소 외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재
서비스 연계 등 한계점	중재 역할의 컨트롤타워 부재 비자발적인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한계 지속적인 무료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 유급자원봉사자 연계 시 예산 확보 및 사용의 어려움 그러므로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어려움